

지방대 위기 현실로...전남 2개 대 4개 과 지원자 '0명'

비수도권 대학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신입생 '충원난' 전국 14곳 26개 학과 모두 지방대...국립대도 '경고등'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일반전형 정원 내 기준)에서 전남지역 2개 대학의 4개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대학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원자 '0명' 학과가 없었다.

중로학원은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을 분석(예체능·종교관련 대학 제외)한 결과,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자 '0명' 학과는 인문계열에서 16개(61.5%), 자연계열에서 10개 등 모두 26개였다.

'지원자 0명' 학과는 2020학년도에 3곳(모두 인문계열), 2021학년도에 5곳(인문 4개·자연 1개)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23곳(인문 14개·자연 9개)

으로 급증한 뒤 올해 더 늘었다.

'지원자 0명' 학과가 당초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은 2022학년도(23개 학과)에 258명이었지만 올해는 445명이었다.

지원자가 없는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8개 지역) 대학에 개설된 학과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대학 10개 학과, 경남지역 대학 4개 학과, 전남지역 2개 대학 4개 학과(총 정원 70명)가 정시모집 지원자가 전혀 없었고, 부산(2개)·충남(2개)·충북(2개)·강원(1개)·전북(1개)에도 '지원자 0명' 학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문계열의 경우 A대학 항공관련 학과(33명 모집), B대학 항공관련 학과(30명 모집), C대학 관광관련 학과(27명 모집) 등 관광·항공관련 학과 지

원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 눈에 띈다.

중로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난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조선태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줄줄이 미달사태를 겪었다.

국립대도 한계에 직면했다. 이번 정시모집에서 순천대(경쟁률 3.5대 1), 목포대(1.79대 1), 광주교대(2.01대 1)는 위기 경보등이 켜졌다. 이들 대학은 경쟁률 3대1에 근접하거나 못미쳤다. 한 응시생이 3개 대학까지 입학지원서를 낼 수 있는 정시모집에선 경쟁률이 3대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최근 적극적인 대응책(정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지원자 '0명'이라는 극단적 양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속도 또한 예상보다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억짜리...전남서 "심봤다"

등산객 415g 희귀 산삼 발견...삼마니협회, 종자 보급용 매입



전남지역에서 감정이 7억원에 달하는 희귀산삼(사진)이 발견됐다.

한국전통삼마니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전남 동부권의 한 산지에서 등산객이 무게 415g의 희귀산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산삼은 뿌리를 기준으로 가로 112cm, 세로 80cm에 달한다는 것이 삼마니협회의 설명이다. 색상, 형태, 수령, 크기, 무게, 맛, 향 등이 국내 산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충북 점단원엔터 연구진과 충북대 원예과학과 백기업 교수팀에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한 결과 인삼의 사포닌 성분 중 함량 작용이 가장 뛰어난 물질인 'RG3' 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1000년 전 백제와 통일신라 시대에 나타난 인삼과 닮은 형태라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협회는 14년 전인 2009년 중국 산삼 시장에서 6억원에 낙찰된 산삼과 비교해 이 산삼의 가치

(금 시세의 20배를 적용)를 6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협회는 국내 인삼과 산삼의 미래가치를 위해 이 산삼을 매입해 종자보급을 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클레(太)에 사람의 형태를 취한 이 산삼은 특히 뇌두 부분이 약통의 발달로 가려지고 안으로 감싸지는 형상으로, 자삼(아기 삼)이 없는 독(獨)삼으로 보여 수령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1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노후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폐쇄해야"

시민단체 촉구...수명연장 반대 전국 서명운동 동참키로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지역민의 서명이 1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환경·노동·종교 등 27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1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폐쇄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한빛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만 4392명의 반대 서명(현장서기 3938명, 온라인 1만 454명)을 모았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편으로 해당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단체는 앞으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

본부'와 함께 전국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단체는 "한빛 1·2호기는 1986년 최초 가동부터 현재까지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격납건물 내 공극과 철판부식 등 결함과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75% 이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가동을 연장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수명이 만료된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대병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023년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대상자로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1년간 운영되며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견 및 의료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등 지역별 광역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강화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광주시 광역전담의료기

관으로 지정됐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자문·의료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공식적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필수항목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 24개 평가 지표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공공사업 참여를 통해 가점을 획득, 종합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단속

전남도가 설 성수기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 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 유전

자검사와 개체유전형질검사를 통해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한우 등급 허위 표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